

# 인천 남동공단 전산담당자의 정보교류 모임 연말에는 불우이웃을 찾아 봉사활동

# 남 동

동전산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인천남동공단의 전산담당자들이 정보교류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인승 회장(대창철강 관리부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공단(工團)이라고 불리는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그리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현재 32개가 있다.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현재 157개가 있으며,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현재 295개가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 총괄 관리하는 25개 국가산업단지는 8천만평에 1만 2천개 입주기업과 50만 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31%, 총수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남동공단에는 약 6천5백 개 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KT가 주축이 되어 몇몇 회사의 전산담당자들이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사회봉사 등의 목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다. 2002년까지는 대창철강, 오공 등 약 10개사가 활동을 했고, 2003년도 접어들어 협력사를 포함한 회원사가

25개사로 늘어났다. 현재 회원사는 50여 개 사이다. “남동공단을 대표할 만한 기업의 정보관리자들이 동참해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본 협의회 창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됐습니다.”

이인승 회장(대창철강 관리부장)은 회원들 간의 공유는 2004년 12월 2일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 경인지역본부에서 공단 내에 협의회 구

이인승 회장(대창철강 관리부장)

성을 토대로 70여 명의 회원 및 후원사가 모여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 이후에는 단순히 친목모임에서 벗어나 연 2회의 워크샵,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정보공유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회원들이 만나는 시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변화관리를 주제로 경주 KT수련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춘계 워크샵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회원사에게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회비 사용은 연 2회 워크샵 시 책자 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누적된 회비는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회원 중에도 한국복지재단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불우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생필품과 아이들 과자를 사들고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찾아갑니다.”

이인승 회장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전했다. 협의회는 사용자와 후원사라는 구분 없이 모두 회원사이다. 이인승 회장은 “회원사를 확대하기 보다는 회원사 간의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Users**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